

0826(금) 에스겔 6-11장 하나님의 영광, 성전을 떠나다

에스겔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볼 수 있습니다.

함락 이전에 ❶ 예루살렘에 심판이 임할 것을 예언하는 부분과(1-24장),

함락 이후에 ❷ 열방 심판, 이스라엘의 회복이 선포되는 부분입니다(25-48장).

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이미 포로생활 중인 동료들에게

예루살렘이 곧 심판과 멸망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해야 합니다.

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유다가 멸망해야만 하는

충격적인 실태들을 보여주셨습니다(8장).

이스라엘의 신앙은 이방 종교들로 오염되었습니다(6장, 7:22).

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목에 우상이 서 있을 정도였습니다(8:3-5).

친 이집트 성향의 장로들은 이집트 식 제의를 행하고(8:9-11),

친 바벨론 성향의 무리들은 바벨론 신을 예배했습니다(8:14,16).

<하나님은 우리를 보지도, 신경 쓰지도 않으신다! (8:12)>

지도층들로부터 언약에 회의적인 반응들이 나왔습니다.

재빨리 태세를 전환하여 이방 나라(신)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.

남은 자들은 포로들보다 영적으로 우월하다 여기면서도(11:3,7),

정작, 잡혀간 자들의 땅과 소유를 탈취하고자 했습니다(11:15).

“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(8:12,15,17)”

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(11:8-10).

에스겔은 감히 중재할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.

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으로부터 멀어지다 결국엔 떠납니다.

(9:3, 10:4,18, 11:22-23)

나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순전합니까?

❶ 하나님과 <우상>을 겸하여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?

❷ 나와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십니까?

시작기도 + 통독 에스겔 6-11장